

오전11시	인도 : 최세열목사	
◆경배와 찬양의 예배◆		
※ 입례송 621장(찬양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 예배부름	인도자
※ 예배기원	인도자
※ 경배찬송 19장(찬송하는 소리있어)	다 같이
※ 교독문7(시편13편)	다 같이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91장(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예배기도 1부 박기환집사 2부 원혜경집사	
응답송	찬양대
이달의찬양 “해 같이 빛나리”	다 같이
협력기도 / 한마음기도 / 중보기도	다 같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 하나님의 감동과 치료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예배◆		
성경봉독 마가복음10:46-52 한국회집사
찬양 임마누엘찬양대
말씀선포	“희망을 지닌 믿음”	
기도 최세열목사
◆응답하는 예배◆		
찬송 460장(뜻 없이 무릎 꿇는)	다 같이
봉헌 (마리아회)	다 같이
봉헌기도	담임목사
친교와소식	말은이
※ 찬송 1장(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같이
※ 축도	담임목사
※ 축복송	찬양대
*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배 후에 다섯분 이상, 15분이상 서로 친교 하십시오.”		

찬양예배 / 오후2시		수요예배 오후7:30분		새벽기도회(월-금)	
인도 / 담임목사	인도 / 최세열목사	새벽 5:00
찬양 / 다함께	찬양 / 다함께	인도 : 담임목사
기도 / 김홍영집사	기도 / 한마음기도	호세아서강해
본문 / 베드로전서 4:12-19	본문 / 딤펬전3:8-16	금요기도회	
말씀 / 최세열목사	말씀 / 최세열목사	금요일 오후 9시
*베드로복회7프레임 / 4.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고난목회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2	합심기도, 중보기도
축도 / 최세열목사	주기도문 / 다같이	개인기도.
예배위원	안내위원	류종란 함경숙 김한순 김금자 김혜경 김영란 김기수 노대성	다음주 기도	1부	선우명환집사
	헌금위원	2월 정정희 정숙자 김병국 천사라 3월 박기환 임병호 정선례 방옥남	다음주 성경봉독	1부	말은이
				2부	류종란권사
	식당봉사	금주 마르다B 다음주 에스더A	다음주 찬양예배기도	김애경집사	
헌신찬양	금주 마리아회	다음주	1 구역		

희망을 지닌 믿음 / 마가복음 10:46-52

복잡하고 급변해서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이 시대적인 환경속에서 우리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 인생의 커다란 버팀목은 희망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여러 가지 버팀목들 가운데서 꼭 필요한 버팀목은 희망입니다. 이 땅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을 잃어버리면 운명론과 숙명론이라는 합병증에 감염됩니다. 또한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운명과 숙명을 찾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삼재(도병재, 역려재, 기근재)가 두려워서 부적을 지니거나 양병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것은 모두 운명론과 숙명론이고 팔자타령입니다.

이 같은 운명론적인 생각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분들 가운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종의 종교적 운명론입니다. 이 종교적 운명론에 빠지면 무기력과 내태함에 빠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절망을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렘29:11) 바른 믿음은 희망이 있는 믿음입니다.

2. 예수님께서 나아감으로 운명을 극복한 맹인 바디매오가 있습니다.

바디매오는 자신의 이름도 없습니다. 맹인이었으며, 거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결함과 환경적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던 것을 희망으로 품었습니다. 그것은 곧 눈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때에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만류와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자 겹옷을 벗어버리고,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달려가는 모습은 그의 간절한 마음과 분명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시자 그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운명의 굴레, 팔자의 죄사슬을 깨뜨려 버리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망이 담긴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숙명과 운명에 사로잡힌 채로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며 절망도 희망도 모두 주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고백하는 것도 아닙니다. 운명으로 여겨왔던 것을 예수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희망과 더불어 극복해 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3. 희망을 지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인류가 존경하는 위인들은 운명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닌 우리가 운명에 맡겨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절망이라는 운명을 허용할 수 없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절망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희망이 단지 개인의 야망과 욕망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중심이 되는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인생을 바라보기보다 숙명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잠30:7-9).

주현절 여섯째 주(2월 16일)

제 8 은총의 선물로 사는 삶(마가복음 8:1-7)

(함께 읽을 말씀 : 열왕기하 4장 42-44, 고린도후서 8장1-7)

말씀묵상

1. 빵은 분명히 일곱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린 사람은 사천 명이 넘었습니다. 빵 일곱 개와 사천 명, 그 간극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어떻게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 반 푼 어찌도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 사흘이나 굶주렸던 많은 사람은 모두가 만족스럽게 먹었습니다. 더구나 먹고 남은 부스러기로도 열 두 광주리를 풍성하게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고, 또한 돈도 없었다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알리바바의 주문이라도 외우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렁각시라도 다녀갔나요?

2.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마술을 부리신 게 아닙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한 번 주목해 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빵 일곱 개를 '드셨고'(받았고), '감사드렸고',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것밖에 다른 어떤 기교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받아 드셨습니다. 빵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입니다. '받았다'는 말은 그것이 본디 내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빵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은총입니다. 우리는 단지 은총으로 살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갈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탐욕의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산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이 은총이라면 어찌 만족하지 않겠습니까. 많더라도 그것이 은총이라면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손에 받은 것이 은총이라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 감사드렸습니다. 찬미했습니다. 은총이 감사의 샘을 터뜨렸습니다. 감사(유카리스트)! 그렇습니다. 여기에 참 예배가 있습니다. 은총에서 터지는 기쁨의 샘, 그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차고 넘쳐서 나누어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떡을 떼어 나누어주셨습니다. 은총을 기쁨으로 나누어주셨습니다. 감사가 나눔으로, 예배가 생활로, 믿음이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것이 어찌 떡뿐이겠습니까? 그것은 은총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은총은 모든 사랑을 만족하게 채우고도 넘쳐서, 부스러기로 열두 광주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총이 감사를 낳고, 감사가 나눔을 낳고, 나눔은 샘이 되어 차고 넘쳤습니다.

3.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것일까요? 소유인가요, 은총인가요?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기쁨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나누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만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고 찬미하며 살아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거나 오늘 등록하신 분, 방문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은 평신도 참여예배로서 마리아회가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권사회 기도회가 1시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3. 청년회 동계수련회가 21일과 22일에 있습니다(담당:김기수집사).
4. 해든솔 선교활동을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 교회수첩에 잘못 기록된 주소나 전화번호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수원지역 3개 시찰회 목회자 수련회가 17일과 18일에 있습니다.

향기로운 예들과 봉사

- 십 일 조 : 최임춘 이경희 박홍만 정정희 김상례 박지영 안드레 김선자 이경훈 안복선 김애경
- 감사헌금 : 김동현 김지환 양희임 지효린 이종춘 심문자 박홍만 정정희 김옥길 여순애 송순옥 무명3 (일천번제)김동현 (생일)한재현 허유리 이유선
- 건축헌금 : 정정희 사라희 마르다 심복례 최승만 임병호 김경희 루디아 박요한 박홍만
- 비전씨앗 : 배영인 노장호 노현호 나인원 나인애

구역 예배를 통한 복음전파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구역	인도자	구역장	모인곳	인원	헌 금	성경	모일곳
1	박홍만	김금자	김거래	6	23,000		김금자	7	강은순	이영선	김숙희	6	11,000	80	김홍영
2	정정희	김한순	신혜영	3	12,000			8	김순님	오복실	오복실	4	15,000	40	허웅
3	이춘호	황경숙	박정일	4	14,000	200	박경자	9	김인순	이영란	김선자	3	11,000	100	박치국
4	김기희	최경선	주종임	4	13,000	20	최경선	10	장영분	노순영	박현순	4	17,000	100	
5	이문순	원혜경	정혜진	3	15,000		윤종원	계				41	148,000	790	
6	류중란	김애자	강진숙	4	17,000	250									

예배시간안내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구 분	요 일	시 간	장 소
주 일 예배	주 일	오전9시,11시	본 당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시	소예배실
찬 양 예배	주 일	오후 2시	본 당	어린이예배	주 일	오전11시	종합교육실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소예배실	청소년예배	주 일	오전11시	소예배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시	소예배실	청 년 부	주 일	오후 2:30	사 무 실

운명을 넘어선 베토벤

클래식 음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한번쯤은 들어본 베토벤의 교향곡 5번 <운명>은 너무나 장엄하고 힘 있는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곡의 제목이 운명이라고 지어진 것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음악가로서 한창 명성을 얻기 시작하던 베토벤이 1801년 심각한 귓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은 이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유언장을 남기고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절망을 이겨내며 1807년 교향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 1악장을 펼쳐든 베토벤이 그의 제자인 안톤 시틀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 베토벤의 이 말 때문에 이 곡은 운명교향곡이라는 제목을 갖게 된 것입니다.

베토벤이 ‘운명은 이와 같이 문을 두드린다’고 말한 것은 음악가로서는 치명적인 청각상실을 의미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귓병이 운명의 양갈음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작곡노트 여백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 스스로 운명의 목을 조르고야 말겠다”

이 곡이 작곡된 상황은 단지 청각을 상실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애인으로 알려진 테레제 브룬스비크와의 파국, 나폴레옹의 침공 등 시련이 겹쳤던 시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는 청각을 상실하고, 애인과 파국하고 국가적인 위기가 운명의 장난이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희망으로 그 운명을 극복해 내겠다고 말한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극복하고 놀라운 운명 교향곡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 - 절망

1994년 르완다라는 나라에서는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엄청난 대학살 사건이 벌어져서 10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내전에 참가해서 처참한 살육현장을 눈으로 보았던 10대들은 여전히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은 고아가 되어 거리를 헤메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배고픔과 전쟁의 아픔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댕니다. 결국 정부는 이같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재활훈련을 시킵니다. 그런데 정말 고민스럽고 정부가 염려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10대 아이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말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절망이야말로 인생을 비참하게,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원천교회비전선언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따라 교회에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선교 한다”

2014-7호 2014.2.16

2월 교회 행사 안내

1. 평신도 참여예배 - 마리아회 / 2월 16일
2. 청소년부 동계수련회 - 2월 14일 - 15일
3. 청년회 동계수련회 - 2월 21일 - 22일
4. 작정밤기도회 - 2월 24일 -28일 오후8시 / 종합교육실
5. 해든솔선교활동 - 2월 15일 오전 9시
6. 안수집사모임 - 2월 9일 오후1시 / 당회실
7. 권사회기도회 - 2월 16일 오후1시30분 / 교회 본당

성지순례단 모집

목회자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를 아래와 같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지순례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지순례 일정 : 2016년 3월중
2. 인원 : 15명이상
3. 1차 준비모임 : 3월 9일(주일) 찬양예배 후
4.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준비내용들은 1차 준비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담당목사 : 최세열(imcsr@hanmail.net)
사무장로 : 박홍만 강항구
교육전도사:강은순, 이경훈 지휘:김영란 반주:안진영